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세상은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찼고, 인간의 죄악과 범죄의 용량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셔야 할 만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땅 위의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05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땅에는 다시 사람들로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견고히 구운 벽돌로 성읍과 탑을 만듭시다. 우리를 지켜 줄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똘똘 뭉쳐서 우리들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봅시다."

홍수 심판 이 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분을 의지하지 않고 견고한 성읍을 쌓음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탑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높은 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도전은 그 죄악의 깊이만큼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심판하셔야 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멸하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곳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날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까지 유보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던 바벨론 근방에 있는 우상의 도시 우르 출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여기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근까지 찾아 온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까지 내려갔지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의 궁에 보내야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견줘보면 예수 잘 믿어 보려고 고향을 떠나 왔는데 타지에서 살 곳도 없고 그 곳에 경제 사정은 최악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갔는데 그곳에서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사정이 나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 분만을 의

지하고 그 분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비록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